

컴퓨터 · 인삼 · 청소기...코로나 악재 뚫고 수출 호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주요 품목 수출이 줄줄이 고배를 마신 가운데 의료용품·건강식품·디지털장비를 포함한 '7대 상품군' 만큼은 지난달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세계 사람들의 생활 양상이 변화하자 그 틈을 파고든 것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선 반도체, 선박, 컴퓨터, 바이오헬스를 제외한 16개 품목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산업부는 이 가운데 반도체와 바이오헬스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장할 신산업으로 꼽아둔 상태다. 이와 함께 의약품과 화장품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

(home)과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미'(economy)를 결합한 홈코노미 역시 대세가 돼가고 있다. 홈코노미의 대표적 상품인 가공식품 수출액은 지난달 26.6%, 진공청소기는 33.7% 늘었다.

K방역 제품인 의료용 방진복은 12만 4561.5%라는 경이적인 증가율을 기록했다. 라텍스 장갑과 손소독제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9.3%, 15,018.7%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우리나라 인삼, 홍삼 관련 제품은 각각 193.1%, 187.9% 늘었다. 집에서 밥을 해먹는 사람들이 늘면서 즉석밥 수출은 109.2%, 전통식품인 김치 수출도 59.8% 증가했다.

이와 관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교역환경을 선도하기 위해 신성장산업인 비대면, 홈코노미, K방역 산업 등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며 "신뢰성과 회복탄력성이 높은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홈코노미 관련 품목 수출 급증 산업부 "반도체·바이오헬스, 포스트코로나시대 성장 신산업"

워드'로 떠오른 언택트(비대면, Untact), 홈코노미와 관련해 수출 실적에 눈에 띄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수출액(통관 기준)이 348억5600만달러로 전년 같은달 대비 23.7%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수입액은 344억1900만달러로 21.1% 줄었다.

우리나라 주요 20대 수출 품목 가운데

이와 관련 산업부는 '코로나19 관련 7대 유망 상품군'으로 △의료용품 △위생용품 △건강식품 △홈쿠팡 △휴먼티 △정가전 △디지털장비를 지목했다.

특히 디지털장비에 속한 컴퓨터는 언택트 경제가 활성화하면서 수출액이 82.7% 급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늘면서 집을 의미하는 '홈

코로나19 관련 7대 유망 상품군 수출동향

(단위: 천달러)

		20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의료 용품	의료용방진복	1643	9471	4487	19515	24632
	라텍스장갑(기타)	437	2019	561	1622	1551
	의료용 고글	368	1107	200	676	727
	의약품	409352	409352	576681	508684	620480
	체온계 등	7368	8014	8178	7768	8684
위생 용품	코로나19 진단키트	3	643	24101	200653	131280
	손소독제	546	11329	5864	44064	82480
	화장지 제품	506	861	1204	2622	1672
	세안용품	13907	22196	23123	24774	24067
건강 식품	인삼추출물	566	115	1193	163	384
	홍삼타블렛, 캡슐	326	385	187	62	373
	프로폴리스 추출물 등	29193	32308	33267	30982	35109
홈쿠팡	가공식품	203762	231425	284681	294393	257256
	김치	8900	9693	11584	14972	14185
	즉석밥	2205	2534	3654	4651	3040
	빵	10052	11797	13453	13605	11252
휴먼티	라면	37381	42637	52075	61946	55224
	비누류	14951	25220	25269	26906	27221
	목욕용품	260	300	419	986	806
청정 가전	면도용제품	104	102	166	42	136
	공기청정기	534	470	180	167	135
	진공청소기	6314	6542	8504	8475	8458
디지털 장비	스타일러	3334	1731	3919	2752	3596
	컴퓨터	911267	1083298	1182495	1052478	1196250
	SSD	688945	827886	849539	825078	957298

news 1

세계 10대 수출대국 실적 '뚝'... 韓, 감소세 최소화

중국 6.6% 미국 9.3% 급감 속 한국, 감소폭 1.4%로 가장 '선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교역 감소로 세계 10대 수출대국의 수출이 일제히 감소했지만 우리나라의 감소세는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최근 수출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출 상위 10대국의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모두 급감했다.

세계 1위 수출대국인 중국은 3월 수출액이 185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6% 줄었다. 2위 미국도 1345억달러 수출에 그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3% 급감했다.

3위 독일도 1207억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9.8%나 쪼그라들었다. 4위인 일본은 59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9% 줄었고, 5위인 네덜란드도 576억달러로 9.1% 감소했다.

6위인 우리나라는 3월 464억달러를 수출해 1년 전(470억달러)보다 1.4% 감소하

며 10대 수출대국 중 가장 적은 감소율을 보였다. 이는 3월 들어 대(對)중국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반도체·컴퓨터 등 비대면산업 품목이 선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덕분에 우리 수출 순위는 7위에서 6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7위인 홍콩은 3월 수출이 445억달러로 1년 전보다 4.7% 줄었고, 8위인 프랑스는 424억달러로 17.9% 급감, 9위인 이탈리아 역시 398억달러로 15.3% 크게 줄었다. 마지막으로 10위인 멕시코는 384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6% 감소를 기록해 한국과 비슷한 감소율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10위권 밖 국가별로 영국(11위·-20.5%), 벨기에(12위·-12.0%), 캐나다(13위·-11.7%), 싱가포르(14위·-5.1%), 러시아(15위·-20.0%) 등이 모두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산업부는 "올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 대비 양호하며 수출 및 교육 순위도 각각 6위, 8위로 전년 대비 한 단계씩 상승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한국의 4월 경기선행지수(CLI)는 7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전월보다 상승했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국민 10명중 8명 "내 집 마련 필수"

89.7% "주거안정 때문"
평균주거기간 7.7년
수도권 6.3년 가장 짧아

국민 10명 중 8명은 자가주택 보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주거안정을 위해서란 응답이 90%에 육박했다.

1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부터 12월 까지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주거실태'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주택보유의식은 84.1%로 대부분은 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답해 2018년(82.5%)에 비해 늘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89.2%로 가장 높았고 50~59세 85.2%, 40~49세 84.7%, 40세 미만 76.9%로 조사돼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보유 의식이 강했다. 소득별로는 상위 91.4%, 중위 85.9%, 하위 78.2%였다.

주택 보유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주거안정'이 89.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산증식(7.1%), 노후생활자금(3.3%) 순으로 집계됐다.

전세에서 자가주택 이사 등 지난해 주택상향 이동 가구 비중은 28.6%로 하향 이동(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7년으로 2018년과 같았다. 자가거주는 10.7년으로 임차가



구(3.2년, 무상제외)에 비해 오래 거주했으며 지역별로는 도지역(10.0년), 광역시(7.4년), 수도권(6.3년) 순이었다.

현재 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6.4%이며, 자가거주는 20.3%, 임차가구는 60.9%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40.3%)이 광역시(35.5%)와 도지역(30.9%)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빈번했다. 이사 이유로는 시설이나 설비 상황(42.6%), 직주근접(30.8%), 주택마련(27.2%) 순이었다.

취약층 '일할 곳이 없다'

임시일용 빈 일자리 전국 9천개뿐...2009년 이래 '최저' 정부, 이달 중으로 취약층에 긴급 공공일자리 사업 공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울췌 실업자가 양산됐지만 한 달 이내 채용 가능한 빈 일자리는 10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임시·일용 빈 일자리가 사상 최저인 9000여개로 추락했다. 이는 임시·일용 근로자가 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국에 1만 개도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1일 고용노동부의 2020년 4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빈 일자리 수는 11만5878개로, 1년 전보다 5만7190개 줄어 들었다.

이 중 상용직 빈 일자리가 10만6740개로, 1년 전과 비교해 4만4234개 줄었다.

임시·일용직 빈 일자리는 전년동월 대비 1만2956개 감소한 9138개로 나타났다.

임시·일용 빈 일자리가 1만개 아래로 떨어진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임시·일용 빈 일자리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고용 부문 집계가 시작된 2009년 6월 이래 항상 1만개 이상을 유지해 왔다.

전체 빈 일자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2월(10만4618개)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다.

◇사라진 채용 공고...코로나19에 두 번 우는 취약층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빈 일자리 감소는 고용시장의 채용여력이 고갈된 부정적인 상황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부의 고용대책에서 소외된 임시·일용직 구직난이 더욱 심화된 상태로 풀이된다.

이는 전체 근로자 대비 빈 일자리 비중을 보여주는 빈 일자리율을 봐도 알 수 있다.

지난달 임시·일용직 빈 일자리율은 0.5%로, 전년동월대비 0.7%포인트(p) 급감했다. 감소폭이 상용직(0.3%p)의 2배를 넘어섰다.

임시·일용과 다르게 상용 근로자가 선방한 배경에는 고용유지지원금처럼 정

부의 적극적인 고용유지 조치가 뒷받침됐다는 평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90%를 사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해 실시 중이다. 지난달 28일 기준 지금까지 6만8137개 사업장이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한정인 탓에 고용보험 가입이 여의치 않은 임시·일용은 소외되기 쉽다. 임시·일용 빈 일자리가 더욱 급감한 배경이다.

◇정부, 구직난 '완충제' 깎다...공공일자리 이달 공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구직난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긴급 공공일자리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연내 공공 중심 일자리 156만개를 제공할 계획을 밝히고, 이 중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의 공고를 이달 내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공지능(AI) 학습용 자료를 구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지·공연장·의료기관 방역을 지원하는 등 여러 사업이 준비됐다.

해당 일자리는 근로기간 최장 6개월인 임시직이며, 주 15~40시간 근로에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제공할 계획이다. 총 소요 재원은 약 1조원이다.